

자살위기를 벗어난 여성독거노인의 회복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임종린¹, 김종성^{2*}

¹양산시니어클럽, ²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Suicide Crisis

Jong-Rin Lim¹, Jong-Sung Kim^{2*}

¹Yangsan Senior Club

²Saha Sarangchae Seniors Welfare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독거노인이 자살위기에 처한 경험과 회복과정을 연구하여 참여자들이 회복으로서의 인생의 본질적 의미와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변화된 생각과 인생에 대한 현상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분석을 통해 4개의 구성요소와 8개의 하위구성요소, 16개의 의미단위 축약이 도출되었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구성요소는 4개로 단절과 불통, 거듭되는 시련, 곤경 속의 행통의 길, 너그러운 포용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의 본질적인 주제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가 전체적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역기능적인 사회구조와 환경의 결과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대안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살실패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지된 내면의 회복요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된 시각이 힘든 현실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the suicide crisis and recovery process by elderly women living alone to identify the essential meaning and components of life as a life to live again. In addition, the recove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s well as the phenomenon of such changes in thought and life,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Data analysis yielded four components, eight sub-components, and 16 semantic unit reductions. There were four components of suicide attempts and recovery experiences of elderly women. They were "disconnection and disqualification," "repeated hardships," "road of prosperity in trouble," and "generous tolerance." The essential topics of these components have emerged not as individual but as holistic and contextually connectable topics. Finally,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essential semantic structure of the suicide attempt and recovery experienc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s a result of a dysfunctional social structure and environment, which has placed pressure on the life of research participants. As an alternative method to overcome, the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extreme practice of suicide attempts, but positive energy to live again due to emotional recovery factors recognized through suicide failures have made it possible to cope with the difficult reality.

Keywords : Elderly Woman, Suicide, Recovery,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Study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용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ong-Sung Kim(Saha Sarangchae Seniors Welfare Center)

email: freer@hanmail.net

Received May 18, 2020

Revised June 24,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노인의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의 자살은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역할 감소 및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위축에 기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1], 사회적 역할 감소는 우울증세가 커지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2].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위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감 증가[4]와 함께 자살시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우울증으로 인한 삶에 대한 비판과 신체적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이 삶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 함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6].

선행연구들을 통해 전 연령대에서 노인의 자살시도 비중이 높고[7]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 개인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그리고 양적연구들의 자살의도와 치료적 접근이 노인과 자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9]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살시도에 대한 사전 개입 전략이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10, 11].

이러한 심층분석 및 연구에 적합한 현상학적연구는 자살위기에 처한 여성독거노인들의 자살시도 체험과 그 이후의 삶에 관한 경험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12].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경험한 것을 본질 드러낼 수 있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연구로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위기 상황에서의 자살 시도 경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회복으로서의 삶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 생각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살의도의 배경, 가족 관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의식적 흐름을 여성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된 이야기에서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살위기에 처했던 여성독거노인에게 자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회복과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

가?”이다.

2. 문헌고찰

2.1 심리학적 이론으로 바라 본 자살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으로는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이 있다[13]. 자기합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이 이론은 여성독거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14].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원망에 기인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15]은 부정적 인지 상태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진 인지상태로 바꾸는 것[16], 즉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때, 현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적응하는 태도는 여성독거노인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18].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19], 노인의 자살시도에는 우울 및 신체 기능장애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것을 밝혀냈고[20], 노인의 자살은 본인 욕구에 대한 충족이나 해결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불행상태에 빠질 때 책임소재를 자신에게 돌려버림으로써 노인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다[21]. 이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보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에서 분노표출 상황임에도 참다보니 결국 노인 자신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감이 상승함으로써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22].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노인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과학적 접근 체계, 심리적 방어기제를 파악한다는[21] 측면에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자살의 요인들은 개인 심리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관점의 이론들은 자살시도와 회복에 대한 여성독거노인과 그들이 속한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환경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심리적 문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과 인지부조화이론은 자살시도 실패 후의 여성독거노인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2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위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와 여성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총 인구수는 2018년 4월 현재 51,790,131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464,60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4%의 비중으로[23], 향후 10년 내에 총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조사대상 34개국 중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노인 인구비율 증가에서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24],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여성독거노인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4년에 20.6%에서 2014년에는 23.0%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 4월 현재 746만 여명의 노인 인구수에 23%의 비율을 적용해 보면, 172만 명의 독거노인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여성독거노인 비율 80%를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독거노인은 13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25].

여성독거노인의 주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상황, 건강악화로 인한 상실감과 질병 상황, 사회서비스 연계망 접근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26, 27].

노인 자살 및 자살위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역시 여성독거노인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28, 29]. 이들 연구는 자살시도에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경제적 빈곤 문제, 신체·정신적 문제상황 발생,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하여 우울감 및 불안감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자살시도 노인의 내면적 갈등의 본질이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질적 연구로 접근하고 있다[7, 8].

최근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여성독거노인 중 자살에 대한 생각이 10명 중 3명으로 26.9%가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은 신체건강 및 심리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에 대한 건강악화로 인한 질병, 경제적 빈곤상황,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역할 상실 및 우울감 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회복의 개념과 영향요인

사회복지학적 회복에 대한 개념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적 개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으로 설명한다[31]. 심리학적 회복에 대한 개념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양태들인 우울, 분노, 고독감, 상실감, 애통함, 무망감, 좌절감에서 행복, 자신감, 기쁨으로 바뀌어 지는 상태, 즉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32]. 회복의 개념적 정의보다 그 속성에 주목하였다[33].

또한 회복의 개념정의에서 기존 연구들은 회복을 '결과'의 관점에서 본 '회복'과 '과정'의 관점에서 본 '회복'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34]. 결과 중심으로 살펴본 회복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된 기간, 횟수 등의 양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그 문제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회복이라 규정한다[35]. 단순히 제시된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는 점과 증상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과 회복에 대한 측정, 개념화된 회복에 대한 기준점을 통해 진행되는 결과중심 관점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복에 대한 양적 실증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심층적 분석 중에서 개인의 전체 맥락적 상황에서의 분석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과정 통하여 살펴보는 회복의 정의가 등장하였다. 또한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회복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 주제적 인격체인 인간은 문제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적 통제력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서 내적 신념과 태도가 개인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Being)과 스스로 만들어져 가는(Becoming) 과정을 의미한다[36]. 그러므로 회복이란 삶에 대한 살아감을 뜻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의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37].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회복은 왜곡되거나 바르지 못한 것에서 과거의 좋았던 상황이나 점차적으로 나은 상태로 적응되고, 모든 과정에서 진행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사회학적으로 편안함, 안전함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 삶을 살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상태에 도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생활경험과 삶을 통해 바라본 회복에서 지속적인 질문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는 삶, 자체가 존재론적인 위기를 뜻한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에게 희망은 있는가? 내가 자살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과, 죽지 않고 살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회복에 포함된다고 본 연구도 있다[38].

이처럼 회복의 영향요인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강점관점과 유사하며, 이용자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주요한 점이며, 장애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요소나 원리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개인과 삶의 전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이해하고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자살의 이론적 접근과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에 대한 시도, 그리고 회복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은 자살 요인에 관한 접근이거나, 개인의 자살에 대해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파악되지 못했던 현상학적 의미를 탐구해 볼 중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방법

3.1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를 경험한 원인과 행동유형을 알아보고, 회복하게 된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을 시도했던 과정 속에서 파생되었던 구성의 의미와 회복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의식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해 검증하려는 양적 연구방법 보다 언어적 표현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참여하는 대상자의 경험 중 심층 탐구 진행이 그들의 경험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연구방법론적인 현상학적 연구가 여성독거노인이 자살시도를 경험에 대한 회복경험에 적절한 연구방법론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경험이 관계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혀내고, 기술과 해석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살시도를 경험한 여성독거노인의 회복' 연구에 접근할 때, 참여자가 영위했던 세계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기술

과 해석을 동일 비중으로 사용하여 심층 분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해 준다.

둘째, 특정 세계와 맥락적 관계에 있는 여성독거노인의 회복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van Manen은 연구대상인 경험에 대한 심층연구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글쓰기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자살시도라는 독특한 세계와 연결된 회복에 대한 상황 및 시간적 흐름에 대해 연구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질 및 구성요소 파악에 지침을 제공해 준다.

3.2 연구참여자 선정방법

질적연구에서의 표집방법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문제와 표본이 적합한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포괄적인 이해와 심층 분석을 위해 참여자들의 진술이 풍부해야 하므로 연구 참여자는 제시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자기 개방성이 높은 대상자를 찾고자 하였고, 비슷한 속성의 다른 대상자들을 소개받기 위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39].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일 것. 둘째, 부부세대가 아닌 독거세대 중 여성단독가구일 것. 셋째, 최소 1회 이상 자살시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넷째, 최소 5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것.

이와 같이 한정된 이유는, 자살시도는 했지만, 여성독거노인 스스로 회복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독거노인 대상자가 필요했으며, 남성보다 자살의도와 자살시도에서 2배 이상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이 연구대상으로 필요했다. 대상자 수 제한은 사례수가 늘어나면 연구자가 참여자를 관찰할 때 발생하는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상학 연구를 진행할 때 참여자 수가 10명이 넘지 않아야 연구가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한 지침과 5명에서 25명까지가 현상학 연구에 적절하다고 한 연구지침이 있기 때문이었다[40, 41].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4명의 노인을 면접하였고, 연구자들이 만든 참여자 선정기준 4가지에 부적합한 9명을 제외하고, 5명을 본 연구에 적절한 참여자로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참여확인서를 구두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구자들과 참여자 모두 서명한 후 각자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진행 기간은 2018년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까지 약 1개월로 연구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여, 연구 진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의 경우에만 선정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참여자의 성향이 차이가 있었는데, 1회기 참여자 또는 2~3회기 참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가 면담 전에 원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녹음은 면담내용에 대해 연구 취지를 설명할 때 받아 놓았으며, 참여자의 의견을 다시 확인 후 동의를 받아 녹음과 기록, 관찰을 진행하였다. 질문방법은 개방적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재질문으로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 고령의 참여자인 것을 고려하여 회기별로 약 5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현장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관찰 메모와 현장 스케치하여 연구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연구 질문에 영향이 미치는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van Manen의 질적탐구 방법을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부르는데, 해석학이란 사물에서 보이는 겉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내면에 담긴 의미를 읽고 해석되는 경직되지 않은 생각 또는 사고를 의미한다[42]. van Manen은 연구자에 의한 직관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해석적인 분석방법을 더함으로 본질구조에 가까이 다가가는 틀을 5단계로 시도하고 있다[43].

1단계인 판단중지 단계는 연구에 접근하기 전에 상식이나 관련된 이론과 학습이 된 지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체험을 본질 그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단중지'의 방법으로 체험을 참여자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 연구자료 수집단계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그에 따라 학습된 지식으로 여성독거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 경험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던 관용어나 언어습관 등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3단계 본질적 주제 반성단계는 다양한 자살시도의 경험과 회복 속에서의 경험이 '자살이 자살로 규정되는 것과 느껴지는 그 무엇', 의미들 중에서 이것이 없으면 '자살' 또는 '회복'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요소를 찾으려고 하였으며, '자살시도'와 '회복'에 대한 체험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되는지를 전사기록에서 다시 확

인해 보았다.

4단계 본질적 주제 기술단계에서는 연구자는 주제 추출을 위해 참여자의 진술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읽은 후 집중적인 문장 검토를 통해 주제 진술을 현상학적 학문표현으로 사용하였다.

5단계 전체적인 탐구맥락 균형 유지단계에서는 본질구조 비판과 전체 맥락적 접근을 위해 노인복지전문가들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전하는 자살의 시도 경험과 그 회복과정에서 나온 경험을 이해하기 위시 심층면담으로 녹음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녹음의 내용을 전사하고, 의미단위로 나타난 것을 구성해 나가면서, 의미의 하위개념 및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한 후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동안 전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3.4 윤리적 이슈와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윤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 연구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연구자의 주의를 환기해 주었다[39]. 이에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IRB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해야 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틀을 여섯 가지로 제시해 주었는데, 연구에 대한 알람, 연구에 대한 동의서 설명, 연구 참여자의 자유로운 참여 및 중단, 연구로 인한 피해 설명,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체계 설명 및 제공, 비밀보장에 관한 것이었다[43]. 본 연구는 이 여섯 가지 틀을 통해 윤리적 이슈를 점검하였다.

연구자들은 타당성 확보와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여섯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44].

첫째, 삼각검증법 전사된 내용과 관찰메모, 연구 참여자의 라이프스토리 등을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를 전사한 후 전사내용과 함께 분석된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의 개별 확인 과정을 거쳤다. 셋째, 관찰은 참여자 1인당 1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2회기 이상의 관찰면담이 이루어졌고, 연구자 또는 참여자의 필요하다는 판단과 요청이 있을 시에 추가 관찰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장기간 관찰법을 적용하였다. 넷째, 동료 검토법으로 대학원에서 박사 수료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회복지사 중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3명을 선정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당되는 참여자의 분석결과와 구성요소 분

석에 당사자인 참여자의 의견을 재 반영하여 의미와 본질이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3명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차원적 검증이 되도록 하였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여성독거노인의 회복 경험에 대한 연구주제와 연구문제, 연구이론, 연구방법론적 관점을 논문 전반에 걸쳐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결과분석은 5명의 여성독거노인들의 자살 시도 이후의 회복과정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사고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통해 121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에 기반한 의미있는 진술들로부터 재구성될 수 있는 요소를 본 연구에서는 56개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56개의 축어록으로부터 본질적인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16개의 의미단위로 축소하였고, 본질적 분석단위인 8개의 하위구성요소가 구성되었다. 이를 다시 전체적인 의미와 통합하여서 최종 4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는 여성이고 나이는 60대 중후반 3명 그리고 70대 중반으로 2명이며, 평균나이는 69.6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 1명을 빼고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이며, 종교에서는 개신교 2명과 무교 2명, 천주교 1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만성 질환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당뇨와 고혈압은 참여자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질환이었다. 유병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고 15년 이상으로 참여자의 평균 유병기간으로는 10.2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4.2 여성독거노인의 자살 시도 및 회복경험의 구성요소

4.2.1 단절과 불통

연구 참여자는 '빈곤이 가져다 준 단절'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원인으로 노년기의 빈곤한 경제생활의 경험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독거노인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불 안 키고 살아도 전기세는 내 눈치 안 보고 나오제, 어이, 그래도 산 목숨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지금도 살아가꼬 이래(한숨),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기라...(참여자3)

...나는 몸이 이래서 어디 가서 일할 병신도 아니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참여자5)

4.2.2 거듭되는 시련

연구 참여자는 경제적 빈곤과 상실감으로 인한 '어두운 터널 같은 굴레'의 경험을 하고 있다.

...벽보고 얘기하는 내가 한심한 거지...여기 벽지 봐바. 시커멓게 피었는데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요...(한숨)...(참여자2)

...어디 갈 테도 없고, 노상 라디오는 켜 놓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돈 아까버 키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소리라도 나와야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참여자4)

연구 참여자들은 '통증과의 싸움'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

...내가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는데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기계로 돌리고 나서 다시 내 몸속에 피를 넣는데... 그렇게 기계가 넣어준 피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힘이 하나도 없어.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가만히 시체가 되어야 해...(참여자2)

...몸이 아플 때는 세상 없어도 그게 제일로 힘든 기라... 내가 죽을 사람인데도 요래 사는 거 보면...숨 쉬기 힘들 어지모...죽을 만큼 아픈 거는 내만 알지...(참여자5)

4.2.3 곤경속의 행통의 길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 문턱에서 느껴진 각성'에 대해 경험을 하고 있다.

...농약 먹었을 때는요 경로당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듣고 내가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많이 왔었는데, 먹을 때 냄새가 너무 고약했던 기억이 있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눈이 떠지는데, 경로당 총무가 그날따라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집으로 왔나봐요.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지 문도 안 잠그고 약 먹었는데

데, 총무가 나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살아났어
요...깨어나서 보니 창피하기도 하고...(참여자1)

...지 아버지 죽고 나서 집을 나갔는데... 나도 딸 찾기를
포기하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는 시댁식구들 등쌀에
살 수가 없어서 맨 몸으로 나왔지. 참 그때도 죽고 싶더
라고...노끈 가지고 와서 성당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목
을 땀어. 숨이 안 쉬어지는 그때 노끈이 어디 잘못 땀는
지 특 떨어지대요. 썩썩거리고 혼자 있는데 그게 내가
죽다 산 거요.(참여자2)

...자식 못 낳은 죄로 시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았잖아...
시댁에서 더 못 살고 밖으로 나와 살았는데, 무릎에도
물이 차서 붓제, 당이 올라서 발가락도 이렇게 생겼었
제, 우째 죽노 하다가 강물에 들어갔는데 낚시꾼들이 내
를 건지내가 살았지.(참여자3)

...약 먹고 슬슬 잠이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문을 두드
리서 안 나갈라 하다가 나갔는데 문 열어주는 뭐라 말
몇 마디 하다가 쓰러졌지. 깨어보니 병원인데, 그 아저
씨가 동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물건 살 수 있는 종이를
나한테 줄려고 왔더라고...(참여자4)

연구 참여자들은 '생의 문으로'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

...그날 깨어나서 창피한 마음도 있었고, 또 내가 다시
살게 된 것도 뜻이 있는 거니까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대요. 참 이상하지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
만, 이제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서 놀랐어요.
(참여자1)

...내가 끈이 풀려서 살았을 때 아니 그전에 숨이 넘어
갈라고 썩 썩 거릴 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목매
는 사람이 웃기지? 죽어서도 하느님 품에서 죽고 싶다
는 생각으로 성당에서 목을 땀는데 못 죽게 한다는 걸...
살아야지. 무조건 살아야지 태어나서 하늘에서 불러주
기 전 질기게 살아야 돼.(참여자2)

4.2.4 너그러운 포용

연구 참여자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경험하
고 있다.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뀐 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인
데, ... 그래도 늦었는 지 모르지만 내가 키우는 꽃들 크
는 거 볼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렇던데 소

망이 있어요.(참여자1)

...다음에 그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번에 올 때는
뭘 해줄까 했더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하는 거 보면
애가 씩이긴 해도 기다려져 자꾸.(참여자4)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

...비가 와서 폐지 주우러 못 나갔어. 돈 나갈 곳이 약 사
는 데도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돕는 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비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만큼
오면 햇빛이 나오잖아요.(참여자1)

...피를 내 몸에서 못 돌리니까, 기계가 내 대신 돌리주
는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람이 할 게 못 돼 토할
거 같은 매스매스하긴 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기계
야 고맙다 하고 바라본다. 이렇다가 또 안 좋은 생각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잡아야지요.(참여자2)

연구 참여자들은 '용서와 관용'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2는 내면적으로 용서를 통해 건강을 소망하고 있
으며, 참여자5 또한 용서를 통해 만성질환이 치유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용서하면 건강해진다고 알려
주거. 참말인가 싶었는데...건강해 질라면 박수도 많이
치고, 많이 웃고, 용서 잘하는 게 최고라 하더니 그 말이
맞긴 맞는갑더라.(참여자2)

...요새 많이 추어져서 밖에 나가기 힘들기는 해도 서로
서로 안 싸우고 용서하는 기 제일 좋다 안 하나? 우리맨
치로 맨날 병 달고 사는 사람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용서라 카데. (참여자5)

5. 논의 및 제언

5.1 연구의 논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석학적인 현상학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살에 대한 원인은 단일 요인이 작용하
는 것이 아닌 만성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과(4), 부모 역
할 상실 및 건강문제, 부계사회 아래에서 강요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자살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8]. 즉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요인이기도 하다.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경험한 삶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노후의 삶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재구성도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의 역경이나 불평등, 힘들었던 좌절감, 충격적이었던 사실에 대한 경험 등은 개인이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어떻게든 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독거노인 5명의 사례에서 인간이 긴급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거나,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성장(growth)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힘과 더 깊은 의미, 영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살아가는 환경은 완벽할 수 없으며, 영위하는 삶도 개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지부조화이론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인간은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부정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우울한 것이라도 인지태도 전환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의 열쇠(key)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에서 여성독거노인들의 회복요인이 설명된다[36].

둘째,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들에 대하여 접근을 할 때, 경험에 대한 해석적 부분과 기술방법에 대하여 단초를 제공하였다. 현상학 연구방법론자인 Giorgi가 기술적 측면을 중시한 것과는 다르게 van Manen은 경험적인 해석과 기술적인 측면 2가지를 중요하게 보여 주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론이다. 이런 특징들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과정에 대한 해석과 연구 참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삶의 의미 그대로 기술하는데 제시하고 있어 질적탐구방법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미치는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만한 현실을 살아가야 함에도 내면 속의 신념체계가 자살 시도 전보다 강해졌기에 불행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과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이 매개체가 되어 참여자 스스로도 사회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의 역할 전환, 소망을 가지는 것,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현실 속에서 잘 실천하지는 못 하지만, 주변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 등이 회복

과정의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존 질적 선행연구들과 비교해서 논의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삶 속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며, 소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도움에 대한 재인지를 비롯한 생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8]. 참여자들의 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버겁게만 다가오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경험[27]은 기존 질적 연구들[29]과 일치했지만, 자살 재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회복에 관한 구성요소가 기존 질적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본질적 특성은 이타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여성독거노인의 역할을 행한다는 점이였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를 했던 여성독거노인의 경험과 회복에 관한 의미를 본질적인 탐구와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목적과 연구범위에 대해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S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의미 구성을 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질적연구의 일반적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른 의미의 구성을 할 수 있는 노인의 경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살 재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 실패 후 성장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험도 나타날 수 있기에 연구자들은 그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선정한 참여자들에 국한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는데,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살 재시도 이후의 노인들의 회복과 회복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5.3 연구의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성독거노인들이 긍정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대전환은 자살시도라는 매우 흔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살시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되지만, 인지부조화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부정적

생각과 태도에서 긍정적 생각과 태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인지하는 좌절과 괴로움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음을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인지기반 알아차림 또는 현재의 왜곡된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관조(觀照)할 수 있는 인지기반적 접근방법 모색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독거노인들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자의로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각하게 된 회복요인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더 이상 고통속에서만 살아가도록 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여한 결과 중심의 회복이 아닌 과정중심의 회복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간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회복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독거노인들이 자주 갈 수 있는 환경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알아채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자신의 사고나 행동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인 가치가 포함된 내적 가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리는 것, 사회적 유대를 통해 개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을 배우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간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개입은 장기적 지원, 전문 인력의 투입, 체계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제도로서 안정화 될 때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삶의 힘겨운 경험을 건강하게 재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R. Lim, "Study on Senior Citizen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Role Recognition: Case Study on Senior Citizen Colleg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9, no.4, pp. 1-31, 2017.
- [2] D. Mechanic, D. D. McAlpine, "Mental health and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Settersten, R. A., Angel, J. L., Handbook of Sociology of Aging" *New York: Springer Nature*, pp. 477-493, 2012.
- [3] M. J. Choi, D. H. Kim, K. W. Lee, J. S. Yi,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isk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54, no. 4, pp. 459, 2015.
- [4] B. K. Shin, S. J. Lee, "Factors Influencing the Length of Time That it took for Elderly to do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Suicidal Attempt after Retirement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43, no. 2, pp. 1-33, Jun. 2016.
DOI: <https://doi.org/10.15855/SWP.2016.43.2.1>
- [5] M. Hawkins, A. Schaffer, C. Reis, M. Sinyor, N. Herrmann, K. L. Lanctôt, "Suicide in males and female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nd comorbi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97, pp. 88-93, 2016.
DOI: <https://doi.org/10.1016/j.jad.2016.02.061>
- [6] J. S. Hur, S. H. You,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lderly pers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3, pp. 7-35, 2002.
- [7] Y. J. Kim, "A Study 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Getting Back to Life and Rediscovering a 'Will to Live' Following Suicide Attemp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5, no. 1, pp. 127- 146, 2013.
- [8] G. S. Lee, G. Choi,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Latter-aged Elderly Suicide Attemp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7, pp. 244-254, Jul.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7.244>
- [9] M. I. Kim, H. R. Shin, "Influenc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 *The Seoul Institute*, pp. 185-201, 2013.
- [10] Y. D. Choe, S. Y. Shin, "Moderating Effect of Sense of Belonging in the Association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vol., no. 13, pp. 155-180, 2014.
- [11] Y. S. Kim, W. Y. HA, "A Study of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on the Suicide Ideation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5, no. 4, pp. 344-374, Dec. 2015.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5.35.4.344>
- [12] Y. C. Kim. S. O. Jung,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Methods V: Data Analysis*, Acadezmypress, 2017.
- [13] L.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91, 1957.
- [14] Y. H. Oh, "A Survey of Hurt and Forgiveness of Korean peop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0, no. 2, pp. 467-486, 2006.
- [15] K. H. Suh, S. S. Lee, S. A. Yang, "Influence of Resentment and Forgivenes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17, no. 2, pp. 433-448, 2012.

- [16] M. E. McCullough, "Forgiveness an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43-55, 2000.
DOI: <http://dx.doi.org/10.1521/jscp.2000.19.1.43>
- [17] E. L. Jr. Worthington, E. L., Jr. "Forgiving and Reconciling Finding Our Way Through Cultural Challenges" *Illinois: IVP Books*, 2003.
- [18] J. L. Ramsey, "Forgiveness and healing in later life" *Generation*, vol. 32, no. 2, pp. 51-54, 2008.
<https://www.istor.org/stable/26555584>
- [19] P. Yip, I. Chi, H. Chiu, K. C. Wai, Y. Conwell, E. Caine, "A prevalence study of suicide ideation among older adult in Hing Kong SAR"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18, pp. 1056-1062, 2003.
DOI: <https://doi.org/10.1002/gps.1014>
- [20] Awata. S, Seki. T, Koizumi. Y, Sato. S, Hozawa. A, Omori. K, Kuriyama. S, Arai. H, Nagatomi. R, Matsuoka. H, Tsuji. I,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in an elderly urban Japanese population: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 *Psychiatry & Clinical Neurosciences*, vol. 59, no. 3, pp. 327-336, May. 2005.
DOI: <https://doi.org/10.1111/j.1440-1819.2005.01378>
- [21] M. Y. Im, *Research on suicide attempt experience by senior citizens -Through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pp. 3-4, 2010.
- [22] F. Geiser, k. Imbierowicz, R. Conrad, I. Wegener, R. Liedtke, "Turning against self and its relation to symptom distress,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rapy outcome: A replicated and enhance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vol. 15, no. 4, pp. 357-365, 2005.
DOI: <https://doi.org/10.1080/10503300500226241>
- [23] Ministry of the Interio,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 [24]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Frequently Requested Data", 2017.
- [25] S. Y. Song, "Current Conditions of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and Improvement Measures at Policy Level", *Institute for Gender and Law*, vol. 7, no. 2, pp. 33-72, 2015.
DOI: <https://doi.org/10.22791/ewhagl.2015.7.2.002>
- [26] S. E. Lee, "Regular Exercis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llness-stress and Depress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no.33, pp. 167-192, 2009.
- [27] H. S. Kim,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7, pp. 207-218, Jul.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7.207>
- [28] C. Y. Koo, J. S. Kim, and J. O. Yu,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lders'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Comparis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5, no. 1, pp. 24, 2014.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4.25.1.24>
- [29] M. H. Jeong, S. H. Heo, "Study on the Effects of Suicide Loss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Plan and Attempt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2, no.1, pp. 305-333, 2017.
DOI: <https://doi.org/10.21194/kjgsw.72.1.201703.305>
- [30] S. I. RYU, Y. H. Park,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in Older Women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2, no. 1, pp. 78-87, 2020.
DOI: <https://doi.org/10.7475/kjan.2020.32.1.78>
- [31] A. Scheyett, J. DeLuca, C. Morgan, "Recovery in Severe Mental Illness", *Social Work Research*, vol. 37, no. 3, pp. 286-303, 2013.
- [32] A. B. Hatfield, H. H. P. Lefley, "Surviving Mental Illness: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The Guilford Press, pp. 351-368, 1993.
- [33] Y. S. Lee, Y. S. Rhee, "A Study on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Q Methodological Appli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5, no. 3, pp. 485-514, 2015.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5.35.3.485>
- [34] H. J. Ch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Mentally Disabled - Focusing on Empowerment Practice in a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 *Crisisonomy*, vol. 14, no. 2, pp. 33-55, 2018.
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2.33>
- [35] R. Stinchfield, K. C. Winters, A. Botzet, S. Jerstad, J. Breyer,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Gambling Treatment Outcome Monitoring System (GAMTO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 21, no. 2, pp. 174-184, 2007
- [36] N. Jacobson, L. Curtis, "Recovery as Policy in Mental Health Services: Strategies Emerging form the Stat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vol. 23, no. 4, pp. 333-341, 2000.
DOI: <https://doi.org/10.1037/h0095146>
- [37] P. E. Deegan, "Recovery: The Lived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vol. 11, no. 4, pp. 11-19, 1988.
DOI: <https://doi.org/10.1037/h0099565>
- [38] B. Robert, T. Ann, "Recovery Theory in Practice: Consumer and practitioner perspective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 5, pp. 111-141, 2013.
- [39] M. Patton,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p. 598, 2002.
- [40] N. I. Lee,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a

horizon in applied phenomenology”, HanGilSa, pp. 415, 2016.

- [41] D. E. Polkinghom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pp. 41-60, 1989.
- [42] G. U. Yu, J. W. Jung, Y. S. Kim, H. P. Kim,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arkYeongSa, pp. 462, 2015.
- [43] J. S. Kwon, I. J. Ch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actice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in Foster Care Cent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no. 43, pp. 1-36, Mar. 2014.
DOI: <http://dx.doi.org/10.16975/kjfs.w.2014..43.001>
- [44]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California : Jossey-Bass, pp. 320, 2009.

임 종 린(Jong-Rin Lim)

[정회원]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2018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2019년 12월 :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관장
- 2020년 1월 ~ 현재 : 양산시니어클럽 관장

<관심분야>

노인복지실천, 질적연구, 종사자 인권

김 중 성(Joung-Sung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3월 ~ 2019년 1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부장

<관심분야>

질적연구, 지역사회개발, 노인복지